

현우중수급전사소창건기(賢宇重修及典祀所勸建記)

1930_김환풍(金煥豊) 지음_34.0×94.0cm



1930년 무성서원의 사무원 태산사를 중수하고 전사소를 창건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작성된 기문이다. 참봉 주천형(朱燦馨)이 주도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김환풍(金煥豊)이 공사의 감독을 하였다. 기문에 의하면, 전사소는 향사시 재계(齋戒)하고 교신(交神)하는 절차에 어려운 점이 많아 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창건된 것으로 보인다. 전사소는 직사(直舍)의 북쪽에 두 칸짜리 건물이라고 하는데 현존하지 않는다. 기문은 공사를 감독했던 김환풍(金煥豊)이 지었다.

賢宇重修及典祀所勸建記

廟焉而崇德院焉而敦學皆所以扶世教植人紀之義而其始創也以儒儀其修補也亦以是故院宇之興替實關於世道之升降而在於士林尊崇之如何耳本院勸自成廟祖癸卯距今四百有餘年年久頹圯修改之役殆無間年常厄於財絀雖乎一新而賢宇之殘缺甚焉朽柱敗楹頹壁傾礎不可時日支撐省內多士之出入齋中者莫不聚首憂懼謀所以冀之工役甚大莫敢下手矣朱奉參檄寮以士望被道內之任祇謁之餘周視咨嗟斷然爲己任損義自擔使其從子坤幹其事屬余董役仲夏始役至秋告竣於是朽者敗者漫漶者傾墊者無不煥然改觀衰濟民李熙元兩斯文實左右之賢宇既完還安將祭僉議以爲院無典祀之所其於齊潔交神之節欠敬者大矣禮不可闕事不可緩不日營建乃於直舍之北作二間廳事工費半額五賢門中排當餘皆院錢殖利中充用而未及陶瓦是可憾也已改堂則諸賢妥靈之地典庫則多士供祭之所數百年未遑之事若有待於今日神人相感之理於斯可驗矣士林崇慕之義亦可想矣兩役既畢不可無記實要余爲文余惟學校書院儒之具也綱紀名分儒之責也其實既弛則其具不期頹而自頹亦理勢之固然以風雨攸除烏鼠攸去母曰吾事已了愛忠節尚名分則何患乎院宇之凋殘乎遂書此以爲記

庚午復月 南至日 道康金煥豊記

都有司	進士	金煥圭	道內掌議	參奉	裴斗鉉
副有司		宋榮昌			金炳亮
摺紳講長	主事	李重明			金振權
參奉		金永寬			李振永
儒林講長		金廷述			金哲斗
摺紳齋長	主事	權丙夏			李春憲
儒林齋長		鄭雲憲			河明容
摺紳訓長	參奉	徐仁煥	色掌		朴敬植
		高濟淳			金奎炫
儒林訓長		金紵鉉			文禹烈
本邑齋長	進士	閔泳頌	本孫掌議		金煥星
執綱		金炳講	色掌		丁炳奎
掌議		金煥豐	監董		鄭昌柱
色掌		李熙元			金煥珍
直日		安恒燮			金永皓
直月		李弼緒			宋相浩
道內執綱		林文奎	別庫有司		金煥益

현우중수급전사소창건기[賢宇重修及典祀所別建記]

묘(廟)는 덕을 본받는 곳이고 원(院)은 학문에 힘쓰는 곳이니, 모두 세상의 교화를 부지하고 사람의 기강을 세우기 위한 뜻이다. 처음 창설한 것은 유생들의 논의를 통한 것이었고 보수하는 것 또한 이를 통해서 한다. 때문에 원우의 흥망은 실로 세도(世道)의 쇠퇴와 융성에 관계되어 있고 사람의 존모(尊慕)가 어떠한가에 달려 있을 뿐이다. 본원(本院)은 성묘조(成廟朝) 계묘년(1483, 성종 14)에 창설되었으니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이다. 세월이 오래되어 무너질 때마다 수리하는 일을 거른 해가 없지만, 항상 재정이 부족하여 일신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현우의 파손이 심하여 기둥이 썩고 두공이 주저앉으며 벽이 무너지고 주춧돌이 기울어 얼마 지탱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재중(齋中)에 출입하는 성내(省內)의 많은 선비들이 머리를 모으고 우려하지 않는 이가 없어 수리하는 방법을 도모하였지만 공사가 너무 커서 감히 착수하지 못하였다. 참봉 주찬형(朱燦馨)이 선비들의 바람에 따라 도내(道內)의 직임을 맡았는데, 지알(祗謁)하고 나서 두루 돌아보고 탄식하며 단연코 자신의 소임으로 여겼다. 의연금을 스스로 부담하고 종자(從子) 곤(坤)을 시켜 그

일을 주관하게 하고 나에게 공사의 감독을 맡겼다. 중하(仲夏 음력 5월)에 공사를 시작하여 가을이 되어서 일을 끝마쳤다. 이에 썩고 무너진 것, 닳고 기울어졌던 것이 모두 완하게 한결 새로워졌다. 배제민(裴濟民)과 이희원(李熙元) 두 사문이 곁에서 도왔다. 현우가 완공되고 나서 도로 봉안하고 제사를 지낼 적에 여러 사람의 의견에 서원에 전사소(典祀所)가 없어 재계(齋戒)하고 교신(交神)하는 절차에 공경이 부족한 점이 크다고 하여 빠뜨릴 수 없는 예이고 늦출 수 없는 일이므로 빠른 시일 안에 지어야 한다고 하여 이내 직사(直舍)의 북쪽에 두 칸짜리 건물을 지었다. 공사비용의 절반은 다섯 현문(賢門)에서 나누어 담당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원전(院錢)을 식리(殖利)한 것 가운데서 충당하여 썼는데, 기와까지 고치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정당(正堂)은 현인들의 영령을 봉안한 곳이고, 전고(典庫)는 많은 선비들이 제사를 준비하는 곳이니, 수백 년 동안 거름이 없어 하지 못했던 일이 마치 오늘을 기다린 것 같다. 귀신과 사람이 서로 감응하는 이치를 여기에서 증명할 수 있으니, 사람이 숭모하는 의리 또한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의 공사를 마치고 나서 사실을 기록하지 않을 수 없어 나에게 글을 요청하였다. 내가 생각건대 학교와 서원은 유학의 도구이고, 기강과 명분은 유학의 실제인데, 실제로 느슨하면 그 도구는 무너지기를 기대하지 않아도 저절로 무너지니, 또한 이치의 형세가 진실로 그러하다. 비바람이 들어오지 않고 새나 쥐가 없어졌다고 해서 내 일이 끝났다고 말하지 말아야 하고, 예절을 아끼고 명분을 숭상한다면 원우가 쇠잔해질 것을 어찌 걱정하겠는가. 마침내 이렇게 써서 기록으로 삼는다.

경오년(庚午, 1930) 복월(復月 11월) 남지일(南至日 동짓날) 도강(道康) 김환풍(金煥豊) 짓다.

진양(晉陽) 강직수(姜直秀) 쓰다.

도유사(都有司)	진사(進士) 김환규(金煥圭)
부유사(副有司)	송영창(宋榮昌)
진신강장(搢紳講長)	주사(主事) 이중명(李重明)
	참봉(參奉) 김영관(金永寬)
유림(儒林) 강장	김정술(金廷述)
진신재장(搢紳齋長)	주사 권병하(權丙夏)
유림재장(儒林齋長)	정운현(鄭雲憲)
진신훈장(搢紳訓長)	참봉 서인환(徐仁煥)
	고제순(高濟淳)
유림훈장(儒林訓長)	김종현(金綜鉉)
본음(本色) 재장(齋長) 진사	민영석(閔泳碩)
집강(執綱)	김병용(金炳甯)

	장의(掌議)	김환풍(金煥豊)
	색장(色掌)	이희원(李熙元)
	직일(直日)	안항섭(安恒燮)
	직월(直月)	이필서(李弼緒)
도내(道內)	집강(執綱)	임문규(林文奎)
도내장익	참봉	배두현(裴斗鉉)
		김병량(金炳亮)
		김진권(金振權)
		이진영(李振永)
		김철두(金哲斗)
		이춘현(李春憲)
		하명용(河明容)
	색장	박경직(朴敬植)
		김규현(金奎炫)
		문우열(文禹烈)
본손(本孫)	장의	김환성(金煥星)
	색장	정병규(丁炳奎)
감동(監董)		정창주(鄭昌柱)
		김환진(金煥珍)
		김영호(金永皓)
		송상호(宋相浩)
별고유사(別庫有司)		김환익(金煥益)

※ 번역 : 「무성서원 고문서(현판) 번역 및 자료집」, 정읍시, 2020